

# 서울시, 송현동 공원화 강행... 대한항공 마지막 희망도 희미

〈LH의 토지 매입〉

서울시 LH에 제3자매입방식 제안  
LH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 없어”  
송현동 부지 선매입 거부할 땐  
이르면 2022년에 보상비 지급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송현동 부지가 끝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발목을 잡히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는 올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심의한 것일 뿐, 법적으로 아직 해당 토지는 공원이 아니다. 도로나 항만, 공원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 심의를 하고, 이를 고시해서 공원이 되고 그 다음 설계 등이 들어간다”며 “권익위 중재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뉴스시스

도 하고 있고 대한항공과도 협의 중이라, 그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관련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권익위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구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8월에도 권익위에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해당 안전의 최종 조정안을 이달 중으로 낼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한항공이 공지로 몰리게 됐다는 데 있다. 그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조정안도 서울시에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자구책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이 최종 조정안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 “조정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할 때는 모든 상황이 다 고려가 된다”고 밝히, 권익위의 조정안 또한 현 상황을 뒤집을만한 묘수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LH를 통한 제3자매입방식도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LH가 송현동 부지의 선매입을 거부할 경우, 대한항공은 결국 이르면 2022년 초에나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를 받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서울시와 LH 간 제3자매입방식은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 또한, 사전에 책정됐던 보상비 4670억원도 향후 감점평가를 통해 어떻게 변동될지는 미지수다. 규모가 더 작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LH에 협의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매입을 확정했다든지 아니면 매입방식이 대금 선지급하고 대체 부지를 받는 것 등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매입 여부 자체도 검토 중이라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대한항공

에 대한 보상비 일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매입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입을 닫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하면 공원 고시를 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 인가 등을 해야 협의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법에 돼 있다. 그래서 시가 매입하면 내년 하반기에 계약해서, 2022년이나 지급 가능하다”며 “그렇다 보니 조기에 제삼자가 먼저 지급해주고, 서울시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이다. 유류 시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간 권익위를 통해 서울시에게 대응해 오던 대한항공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의 중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은 절차를 강행하면서 권익위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권익위, 대한항공과 다 사전에 공유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LG전자, ‘V60 씽큐’ 등 日서 디자인 인정

‘굿디자인 어워드’서 4개 본상 수상  
제품 성능, 편의성 디자인 돋보여

일본도 LG전자 디자인에 매료됐다. LG전자는 최근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4개 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일본디자인진흥원(JIDPO)이 발표하는 현지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글로벌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LG전자는 제품 성능을 돋보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제품을 설치하는 공간과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울트라 HD 360 모니터(모델명: 32UN880)는 로봇 팔을 연상시키는 다관절 디자인을 적용했다. 화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사용자가 보다 편안한 자



LG전자 ▶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이크로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모델명: LSAB)와 LED 사이니지 LG LED 블록(모델명: LSAA)은 케이블리스 콘셉트를 적용했다. 이 디자인은 캐비닛(LED 소자가 박힌 LED 사이니지의 기본 단위)이 서로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캐비닛간 별도 유선 연결 필요 없이 레고 블록처럼 이어 붙이는 것만으로 대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사업용 프로젝터 LG 프로빔(모델명: BU50NST)은 최대 300형 화면에 4K UHD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 화면 테두리 12개 지점을 선택해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데다, 상·하·좌·우로 렌즈 조절도 가능해 사용자는 손쉽게 원하는 대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다.

아울러 V60 씽큐도 듀얼 스크린 활용성을 인정받으며 본상을 수상하는데 성공했다.

/김재용 기자 juk@

## SK이노, 폐플라스틱으로 화학제품 개발

열분해유 불순물 대폭 줄여  
친환경 등 ESG 경영 박차

SK이노베이션이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최근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얻은 열분해유로 화학제품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SK이노베이션이 SK 그룹 차원의 ESG(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그린 밸런스 전략에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은 오래도록 쌓아 온 석유화학제품 처리 노하우와 연구개발 역량으로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열분해유의 불순물을 대폭 줄여, 시험생산규모로 솔벤트와 윤활기유 등 시제품 제조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제조한 솔벤트는 파라핀 함량이 높고 냄새도 적어, 기존 제품에 비해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활기유 역시 ‘그룹-3 플러스’급 최고급 기유를 만들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솔벤트는 세정제, 페인트 희석제, 화학공정 용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이다. 윤활기유는 엔진오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 윤활유를 만드는 주원료이자, 품질을 결정 짓는 핵심 재료다.

SK이노베이션의 화학사업자회사로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폐플라스틱 이슈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 비즈니스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변화시켜, ESG 관점에서 차별화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연구원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솔벤트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다”며 “SK종합화학은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 화학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분해유를 다시 고품질 화학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다양한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는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순물이 남아있으면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의 원인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열분해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상품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친환경 사업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SG란 기업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SK종합화학은 ESG 경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그린 포 베테라이프(Green for Better Life)’ 전략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상생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 까사미아, 개포 래미안에 오픈하우스 운영

삼성전자와 가전·가구 등 컬래버

까사미아는 삼성전자와 함께 서울 강남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사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는 총 2296가구 규모의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로 강남 도심 접근성은 물론 병원, 학원, 고급 커뮤니티 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높은 주거 선호도를 보이

며 하반기 부동산 및 가구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까사미아×삼성전자오픈하우스’는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114동 302호에 문을 열어 12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각 공간의 용도에 어울리는 까사미아 가구와 라이프스타일 전문 온라인몰 ‘굿닷컴’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가전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방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오픈하우스 체험 후 디지털프라자서초본점, 압구정점, 서래점, 신세



계강남점 등 가까운 까사미아 매장에 방문하면 까사미아 전 품목(행사 상품, 균일가 제외) 20% 할인 및 마이리지 추가 적립 등 특별 혜택과 함께 가구를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